농촌의 지역별 契형태와 그 실태

A Pattern and Actual State of "Kye" in Rural Area

건국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 사 김 시 월

Dept. of Home Management, Kon Kuk University
Lecturer : Si Wuel Kim

〈목 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조사지역의 개관
Ⅴ. 연구결과 및 해석
Ⅵ.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In this survey, we tried to find out number of participating and main purpose of that "Kye" meeting of all family members in rural community.

Main purpose is follows;

First, Differences by rural area, number of participating and main purpose of that "Kye" meeting of all family members in rural community.

Second, Relationship between residence years by the head of a family and numbers in rural community.

Third, Relationship between size of owned land(paddy field and uplaned) by the head of a family and number of participating and main purpose of that "Kye" meeting of all family members in rural community.

Fourth, Relationship between size of cultivated land(paddy field and uplaned) by the head of a family and number of participating and main purpose of that "Kye" meeting of all family members in rural communit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different points by the kind of rural area in number of participating and "Kye for friendly gathering", "Kye for saving", "Kye for sightseeing".

Second, variable of residence years of the head of a family is only negative influential factor in "Kye for saving".

Third, variable of size of owned land is positive influential factor in total number of participating "Kye", "Kye for friendly gathering", "Kye for saving" and "Kye for sightseeing".

Fourth, variable of size of cultivated land is positive influential factor in total number of participating "Kye", "Kye for mourning and marriage", "Kye for friendly gatiering", "Kye for saving" and "Kye for sightseeing".

It seems that "Kye" meetings are still a preferred means by the rural community to gather the cooperation among rural population. But the purpose of "Kye" meetings has changed from the family centered such as worship or marriage and mouring of family members to out of the family centered events such as friendly gathering, sightseeing.

Ⅰ. 서 론

옛부터 강대국에 둘러 쌓여 있던 우리나라는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외세의 침입과 크고 작은 사건이 빈번하였고, 그 때마다 서로 돕고 뭉치는 협동의 삶을 이루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 전통적인 두레, 향약, 契 등은 모두 고유의 협동정신의 발로로 볼 수 있으며(손인철, 1984) 이는 많은 고통과 고난 그리고 기쁨을 같이 하면서 생겨난 강한 공동체 의식의 발로라고 사료된다. 즉,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아끼면서 형성된 자연스러운 협동체계인 것이다.

그 중에서 契는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형태의 공동체로 볼 수 있고, 마을이라는 공동체 위에서 형성된 집단형태의 조직으로 보고 있으며(최 협, 1986), 또 우리 학계에서는 전통적으로 공동체적 성격을 같이 한 집단이나 조직으로 좁게는 가족, 친족과 같은 혈연집단, 이웃이나 마을을 비롯한 지역집단 등으로 광역의 지역집단 및 국가적인 차원으로까지 민족공동체를 열거하고 있다(한상복, 1980). 우리의 공동체 성립의 주요한 물질적인 기반을 이루는 것은 "토지"이며(이영훈역, 1982), 그 토지를 둘러싸고 생산을 위한 노동의 투입과 소비를 조화롭게 이행하여 농경사회의 기초적인 공동생활을 구축했으므로 농경사회에서는 주축을 이루었다.

초기에는 토지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들의 협동체는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인 협동과 도움이 주를 이루었지만 사회와 시대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지역적인 분류가 협동체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사료된다.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경제는 발전하였으나 그 이면에는 인구의 이농 현상을 급증하게 했으며 (즉, 1960년 도시화가 28.0%였던 것이 1990년 현재는 74. 0%임), 순수 농가인구의 비율은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에서 18.7%(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9)에 불과하다.

또한 젊은이의 이농으로 인하여 농가전체인구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층의 비율은 10.5%나 되며, 그리고 전체 65세 이상의 노인중 市部에 거주하는 비율은 45.3%, 농촌에 거주하는 비율은 54.7%인 것으로 보아 농가 인구의 고령화 현상을 쉽게 알 수 있다. 농촌인구의 감소(1982년을 기준으로 볼 때, 1987년까지의 5년동안 농가인구의 감소율은 19.8%이다. 한국통계연감, 1988)와 그에 따른 농업의 특성, 즉 기계화의 부족, 인력동원의 특성, 수작업 등을 고려할 때 더욱 더 농가인구간의 협동과 협조가 필요하며, 이를 보충하는 공동체가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과거 농촌사회에서 협동체계였던 契가 오늘날 어떤 변화를 가져 왔는지 알아 보는 것은 사회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는 가정생활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38선 이남은 전통적인 소문화영역에 의해서 경상남북도를 합친 영남지방, 전라남북도를

합한 호남지방, 그리고 충청남북도를 합한 기호지방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황경 외, 1959). 따라서 契의 최초의 발생이 한국 농촌사회라(文定昌, 1942)는 시각에서 볼 때, 분류된 세 지역에서 대표지역을 선정하여 현재 농촌에서 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토지와 契의 관계, 그리고 그 契의 실태가 어떤 상황인가를 알아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 契의 실태와 목적, 契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성격. 그리고 契의 선호정도를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 우리나라 농촌을 대표하는 세 지역간의 차이를 알아 보고, 현재 농촌의 契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며, 기존의 농촌契에 대한 연구와 비교하여 그 흐름을 보는 것이다. 이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 변해 가는 오늘날의 사회를 협동이 요구되는 契활동의 변화를 통해 변화하는 가정생활의 면모를 파악하고 앞으로 우리사회가 더 나은 공동체 사회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Ⅱ. 이론적 배경

1. 契의 목적과 기능

契의 목적을 종류별로 분류한 것은 여러자료이지만 契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조선시대 후기에 나타난 契의 목적을 손인철(1984)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첫째,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契 : 이 범주에 속하는 契는 경제적인 면보다는 계원들간의 친목유지를 주요한 기능으로 하는 것이다.

둘째,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한 契 : 이는 도로, 교량, 보 등의 건설과 수리 및 토목에 관한 것과 서당, 동사 건립을 위한 교육적, 종교적 사업 등이 속한다고 하겠다.

셋째, 상호부조와 보험을 목적으로 한 契 : 계원 가족의 장례식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지급을 목적으로 한 것과 혼사준비를 위한 契가 여기에 속한다.

넷째, 산업단체로의 契 : 계원이 상호협동하여 금전과 노동을 출자하여 이것에 의한 생산, 판매, 구입, 금융 등의 산업적 목적을 달성시키려는 것으로, 여기에는 공동으로 기구를 구입하여 생산에 종사하는 것 등이 이에 속했다.

최재석(1985)의 契의 종류에 관한 분류를 보면, 첫째, 생산, 이식, 공동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집단, 둘째, 동리의 공공비용의 지불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집단, 셋째, 성원의 복리 및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복지적 집단, 넷째, 조상의 제사 혹은 부락의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적 집단, 다섯째, 성원들의 자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적 집단, 여섯째, 성원의 친목과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레크레이션 집단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제의 강점기에 접어들면서 그들 정책에 의해 우리나라의 공동체는 현저히 쇠퇴하게 되고 그 발전이 변형, 왜곡되었다. 일제는 우선 마을 공동체의 자치적 성격이 그들의 식민지 통치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자연촌락의 "자치성"의 소멸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여(최 협, 1986), 한국인의 협동체적인 契의 모임을 이용하여 정책적으로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하였다. 이는 한일합방 이후 근대적 사회의 성격과 식민지 하의 통치상의 사회체제가 공동협동체의 변화과정을 보이게 했다.

2. 시대적으로 본 契목적의 변화

契와 관련된 연구는 이미 오래전 부터 다수의 연구자에 의해서 많은 조사가 행해졌으며, 그 년도별 契의 종류에 대한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만갑(1960)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혼인계, 회갑계, 혼상갑계, 쌀계, 상포계 등의 순서로 상호부조나 협조를 위한 契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도홍렬(1965)의 연구 결과도 쇠창계, 부조계, 혼상갑계, 찬장계, 광목계 등의 순서로 이 또한 상호부조와 협조를 위한 순서로 나타났다. 그리고 1969년에 강창규의 조사결과를 보면, 공익계, 공제계, 친목계, 산업계, 이식계 등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75개의 표본리·동에서 파악된 契의 총수는 669개였으며, 이 중에서 관혼상제시의 상호부조를 주목적으로하는 공제적인 성격의 契가 56%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그 다음으로는 공익계였고, 산업계와

이식계는 각각 2%와 8%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왕인근, 1983).

위에서 지적한 이만갑의 경우는 1958년에 실시한 같은 지역을 1969년에 재차 조사하고, 1980년에 3차 조사하여 契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1차 조사시에는 19개의 契 종류 가운데 10개 종류가 혼상갑계로 공리적인 契가 다수 성행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3차 조사를 실시한 1980년에 와서는 혼수상갑계에 참여한 사람은 극히 소수로 줄어든 반면 영리적인 契는 여전했지만, 특히 관광여행을 위한 契와 친목계 등이 상당히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한규(1986)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契목적을 친목도모, 저축 목돈융통으로 분류하였을 때 농어촌의 경우가 다른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친목도모를 위한 목적이 조금 높았으며, 반면에 금전적인 기능인 저축의 수단으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호응도가 낮았다. 이는 농촌의 현금유통의 빈약과 공적인 금융기관의 활용으로 인한 이유도 있지만 농어촌의 영농방법의 개혁 및 기계화 등으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가도 그 이유가 되며, 놀이문화의 새로운 정착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최은영(1984)의 농촌의 契연구 결과에서도, 농민생활의 영역이 확대되고 도시소비문화가 농촌에 침투함에 따라 친목계가 새로이 성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3. 시대적으로 본 契참여도의 변화

고황경외(1959)는 우리나라의 농촌을 대표하는 3개도(경상도, 충청도, 전라도)의 특정한 지역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는 바 그 결과를 보면 가족중에서 契에 참여한 사람이 있는 가구의 수는 총 711가구중 303가구로 42.6%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이만갑(1960)의 농촌 契참여율 조사(가구별 참여율)를 보면 336가구 중에서 38.1%가 참여하고 있으며, 도홍렬(1965)의 연구에서는 농촌사람의 契참여율은 21.2%에 불과했다.

그리고 정한규(1986)의 전국적인 규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는 과거의 契참여 경험의 유무에 있어 경험이 있는 경우가 농어촌은 68.2%, 중소도시가 62.4%, 대도시가 60.6%로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1986년을 기준으로 현재 참여하고 있는 정도는 농어촌의 경우가 47.0%로 중소도시 4.12% 대도시 40.8%에 비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를 보면 농촌의 경우는 아직도 契의 참여도가 높은 편이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많을 수록 契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고, 60세 이상은 전체의 50%가 契에 참여하고 있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의 자료 및 대상

우선 이 연구의 기초 자료(Raw Data)는 Asian Family Project*의 일부를 사용한 것임을 밝혀둔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고황경외 여러학자들이 1959년에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지역에서 실시한 해당 郡을 선택하여 군의 협조를 얻어 재조사하였으며, 표본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주응답자는 그 가구를 대표하는 주민등록상의 가구주에 한하였다.

2. 연구자료 및 제한점

설문지의 작성은 1989년 11월부터 두차례의 예비조사 후 1990년 1월 30일에 완성을 했으며, 실조사는 1990년 2월 1일부터 17일까지 세 지역을 다니면서 각 해당지역의 군의 협조를 받고, 각 지역 이장의 많은 협조를 받아서 이루어졌다.

세 지역의 표집자료는 전체 472가구주가 선정되었으나 가구주의 장기출타, 응답거절, 응답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대상을 제외하고 전체 408가구주가 응답을 했다. 따라서 전체 표본중에서 완성율은 86.4%에 이른다.

본 논문의 제한점을 지적하면 우선 조사대상지역을 세지역만 선택했다는 점, 그 선정된 지역이 각

* 건국대학교 한인숙 교수와 East-West Center(U.S.A.) 및 일본 Nihon University 공동 프로젝트인 Asian Family Project임.

도를 1959년 당시 SES에서 가장 대표성있는 지역을 선택하였으나 30년 후인 현재에도 대표성이 있는가 하는 점, 그리고 응답자는 주로 가구주를 중심으로 했으나 契에 관한 질문은 그 가족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契에 관하여 질문했으므로 관련변수의 설정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3. 연구문제

본 논문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의 지역간 契의 참여수, 契의 목적별 참여수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농가 가주주의 거주기간이 농촌契의 참여수, 契의 목적별 참여수의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농촌에서의 경제수준이 契의 참여수, 契의 목적별 참여수 차이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Ⅳ. 조사지역의 개관

1. 조사지역 선택

조사지역은 영남지방, 호남지방, 기호지방 중에서 기호지방의 경우는 충청북도 천원군(율곡1리, 율곡2리, 율곡3리, 양령1리, 양령2리, 양령3리, 성원1리, 성원2리, 용두1리, 용두2리, 용두3리 등 11개의 리) 일대, 영남지방은 경상북도 군위군(외양1리, 외양2리, 외양3리, 대북1리, 대북2리, 오곡리, 달산1리, 달산2리 등 7개의 리), 그리고 호남지방의 경우는 전라북도 담양군(운구1동, 덕성1리, 덕성2리, 덕성3리, 대곡1리, 대곡2리, 화방1리, 화방2리, 화방3리 등 9개의 리)으로 선정하였다. 이것은 1959년에 고황경외 3인이 행한 초기 한국 농촌 조사를 행했던 지역과 동일한 지역으로 30년 간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했다.

2. 조사지역의 가구분포

조사지역의 총가구수는 충청도 천원군이 640가구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전라도 담양군 454가구, 경상도 군위군이 425가구 순이였다. 이중에서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는 총 472가구였으나, 상기한 바와 같이 가구주의 장기외출, 응답거부, 응답 불가능 등의 이유로 완성된 가구수는 408가구로 완성율은 86.4%였다(표 Ⅳ-1).

〈표 Ⅳ-1〉 조사지역의 가구 분포 및 완성가구수

지 역	총가구수	표본추출가구수	완성가구수
충청도 천원군	640	161	143
경상도 군위군	425	160	149
전라도 담양군	454	151	116
합 계	1,519	472	408

3. 조사지역의 인구학적 특성

조사지역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전체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세지역 전체가 3.4명이였고, 지역별로는 충청도가 가장 많은 3.9명, 전라도가 3.3명, 경상도가 3.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5년도 농촌 평균가구원수 5.7명(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5)에 비하면 농촌인구의 감소를 알 수 있다.

성비(Sex Ratio)는 전라도와 충청도의 경우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그 수가 더 많으며, 경상도는 남자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라도와 충청도는 각각 여자 100에 남자 95.4명, 98명이며, 경상도의 경우는 여자 100명에 남자 101.8명이었다.

연령분포는 충청도의 경우는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15-64세까지의 인구가 64.6%이었고, 0-14세까지의 인구는 24.1%로 다른 도에 비해서 비경제활동인구가 높은 편이었다. 한편 65세 이상의 인구수는 타도에 비해서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경상도 군위군은 경제활동 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높았고(67.1%), 주된 인구의 구성 연령은 40-64세가 42.0%로 가장 많았다. 전라도 담양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노령인구(65세 이상)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의 표본지역중 충청도 천원군의 경우는 순수 농가가 아니라 목축, 과수재배 등을 겸하고 경기도 평택시와 인접한 곳으로 산업화가 다른 지역보다는 앞섰으며, 학교와 공공시설의 근접으로

인하여 학령기 아동이 많은 것으로 생각한다. 또 대부분이 객지에서 전입해온 가구로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노령인구의 저하를 볼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 지역 농촌인구의 주된 인구구성은 40세 이상이 51.2%로 중장년으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표 Ⅳ-2).

〈표 Ⅳ-2〉 조사지역의 인구학적 특성

지 역	평균 가구원수	Sex Ratio	연령분포(%)			
			0-14	15-39	40-64	65+
충청도 천원군	3.9	98.2	24.1	32.3	32.3	11.4
경상도 군위군	3.1	101.8	16.9	25.1	42.0	16.0
전라도 담양군	3.3	95.4	17.9	28.3	37.4	16.4
합 계	3.4	98.6	20.1	28.8	36.9	14.3

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 가구의 일반적인 특성

1) 지역별로 본 농가가구원수

지역별 평균 가구원수는 충청도 3.87명, 전라도 3.27명, 경상도 3.11명의 순이었고, 전체는 3.42명으로 이는 1990년(경제기획원) 우리나라 전체 농가이 가구원수는 3.7명과 비교할 때 조금 낮은 편이다.

이로 보아 농가가구의 구성원수는 1955년 5.25명, 1975년 5.04명(경제기획원), 1990년 3.7명과 비교할 때 상당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이농현상에 따른 농가인구의 감소로 인한 한 단면으로 추측된다(표 Ⅴ-1).

2) 지역별로 본 농가의 가구구성

농가의 가구구성을 보면 부부만의 가구, 부부와 그들의 미혼자녀들로 구성된 가구,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과 그의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인 단순가족가구가 가장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62.5%), 그리고 가구주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그 윗세대와 그 아래 세대가 구성원인 확대가족가구가 23.0%이었다. 그리고 혼자서 거주하는 단독가구도 9.3%나 있어 농가인구의 감소를 볼 수 있다(표 Ⅴ-2).

따라서 과거 농촌 가족의 특성인 확대가족이 없어져 가고, 핵가족과 단독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표 Ⅴ-1〉 지역별로 본 농가가구원수

지역 / 가구원수	충 청 도		경 상 도		전 라 도		합 계	
	f	%	f	%	f	%	f	%
1	11	7.6	14	9.4	13	11.2	38	9.3
2	25	17.5	52	34.9	34	29.3	111	27.2
3	25	17.5	33	22.2	24	20.7	82	20.1
4	29	20.3	18	12.1	17	14.7	64	15.7
5	27	18.9	19	12.7	14	12.1	60	14.7
6	16	11.2	11	7.4	11	9.5	38	9.3
7	10	7.0	2	1.3	2	1.7	14	3.4
8	-	-	-	-	1	0.8	1	0.3
합 계	143	100.0	149	100.0	116	100.0	408	100.0
평 균	3.87		3.11		3.27		3.42	

〈표 V-2〉 지역별 농가의 가구구성

지역 / 가구구성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합계	
	f	%	f	%	f	%	f	%
단독가구	11	7.7	14	9.4	13	11.2	38	9.3
단순가족가구	87	60.8	96	64.4	72	62.1	255	62.5
확대가족가구	37	25.9	29	19.5	28	24.1	94	23.0
복수가족가구	7	4.9	10	6.7	2	1.7	19	4.7
비가족가구	1	0.7	–	–	1	0.9	2	0.5
합 계	143	100.0	149	100.0	116	100.0	408	100.0

〈표 V-3〉 지역별 농가의 세대구성

지역 / 세대구성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합계	
	f	%	f	%	f	%	f	%
1세대	31	21.7	57	38.3	44	37.9	132	32.4
2세대	77	53.8	61	40.9	51	44.0	189	46.3
3세대	34	23.8	28	18.8	21	18.1	83	20.3
4세대 이상	1	0.7	3	2.0	–	–	4	1.0
합 계	143	100.0	149	100.0	116	100.0	408	100.0

이었으며, 이 또한 도시화와 산업화의 한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3) 지역별로 본 농가의 세대구성

농가의 세대구성별 특징은, 부부와 그의 미혼자녀나 혹은 부부와 그의 양친이나 편친 등으로 구성된 가구가 46.3%로 가장 높았으며, 단독가구나 부부와 그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1세대가 32.4%, 다음이 3세대구성으로 20.3%였다. 4세대 이상은 전체 1.0%로 거의 소멸되어 가는 것 같다. 지역별로는, 충청도가 다른 두 지역에 비해서 2세대가구가 더 많았고, 경상도와 전라도는 충청도에 비해서 1세대가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V-3).

이는 농촌 인구의 도시로의 이농으로 인한 농촌 인구의 감소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을 과거의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 2세대가구가 상당히 감소를 하고, 3세대와 4세대 가구구성은 그 변화가 별로 없으나 단독가구를 포함한 1세대 가구가 상당히 증가한 현상을 볼 수 있다.

4) 지역별로 본 가구주의 거주기간

지역별 가구주의 거주기간은 지역적인 특성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다. 도시와 인접한 충청도는 새롭게 이주해서 정착한 가구가 많았던 것처럼 거주기간이 경상도와 전라도의 경우보다 짧았다. 10년 미만이 전라도 3.5%, 경상도 12.1%이나 충청도는 16.8%뿐이었다. 50년 이상 거주는 전라도(55.1%), 경상도(34.9%)에 비해서 충청도는 28.7%에 불과했다(표 V-4).

즉, 충청도는 도시와 인접한 지역으로 도시로의 이주나 도시에서의 이주가 다른 농촌 지역보다 이동율이 활발하여 농가가구주의 거주기간이 타지역보다 짧았으며, 전라도는 다른 두 지역보다 10년 이상 농가 가구주의 거주기간이 길어 농촌가구의 전통성과 보수성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노령인구도 전라도가 가장 많았다.

* 1960년과 1985년의 농가세대구성을 비교해 보면 1960년에는 2세대 가구가 68.9%였던 것이 1985년에는 61.4%로 감소하였으며, 3세대와 4세대구성은 1960년 20.1%에서 1985년 20.4%로 그다지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5) 조사지역 가구의 전답소유 및 농사참여 상황

경지규모를 통해서 농민층을 분해할 때는 지주, 자작, 자소작, 소작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나(이영기 외, 1984),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농민 분해까지는 접근하지 않고 응답자의 내용을 기초로 분류하였다.

조사지역 가구의 전답소유와 농사참여에 관한 상황은 자신의 땅을 직접 경작하는 자작의 경우가 전체 51%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경상도 군위군(56.4%), 전라도 담양군(51.7%), 충청도 천원군(44.8%)의 순이었다. 그 다음은 농촌에 거주는 하지만 소유한 농토도 없고 농사도 짓지않는 가구가 상당수 있었으며(14.9%), 충청도는 도시와 근접한 산업화의 영향으로 단순 생산직이나 농사 이외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임을 알 수 있다(표 V-5).

6) 지역별로 본 소유 전답규모

농토의 소유가 전혀 없는 경우는 지역적으로 도시와 근접해서 생산직이나 일용근로직 등 단순 기술직에 종사할 여건이 되는 충청도의 경우가 가장 높은 35.6%였으며, 전라도의 경우는 18.1%, 경상도는 14.1%였다. 그 다음 소유규모를 보면 세 지역 모두 0.5~1 ha 미만(1,500평~3,000평미만)이 경상도(30.2%), 전라도(26.7%), 충청도(24.5%)의 순으로 나

〈표 V-4〉 지역별 본 가구주의 거주기간

지역 / 거주기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합계	
	f	%	f	%	f	%	f	%
10년 미만	24	16.8	18	12.1	4	3.5	46	11.3
10~20년 미만	20	14.0	15	10.1	4	3.5	39	9.6
20~30년 미만	19	13.3	13	8.7	9	7.8	41	10.0
30~40년 미만	21	14.7	23	15.4	12	10.3	56	13.7
40~50년 미만	18	12.6	28	18.8	23	19.8	69	16.9
50~60년 미만	22	15.4	34	22.8	31	26.7	87	21.3
60~70년 미만	14	9.8	17	11.4	26	22.4	57	14.0
70년 이상	5	3.5	1	0.7	7	6.0	13	3.2
합 계	143	100.0	149	100.0	116	100.0	116	100.0
평 균	34.6		39.0		49.4		40.4	

〈표 V-5〉 조사지역 가구의 전답소유 및 농사참여 상황

지역 / 전답소유상태	충청도 천원군		경상도 군위군		전라도 담양군		합계	
	f	%	f	%	f	%	f	%
소유는 하나 대여만 함	3	2.0	3	2.0	4	3.4	10	2.5
대여도 하고 자작도 함	2	1.4	5	3.3	3	2.6	10	2.5
자작만 함	64	44.8	84	56.4	60	51.7	208	51.0
자작>소작 규모	12	8.4	27	18.1	14	12.1	53	13.0
자작=소작 규모	1	0.7	1	0.7	7	6.0	9	2.2
자작<소작 규모	10	7.0	8	5.4	7	6.0	25	6.1
소작만 함	15	10.5	8	5.4	9	7.8	32	7.8
비소유 비농사	36	25.2	13	8.7	12	10.3	61	14.9
합 계	143	100.0	149	100.0	116	100.0	408	100.0

타났다(표 V-6).

7) 지역별로 본 경작 전답규모

다음은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농가에서 농사를 짓는 경작지의 전답규모를 알아본 결과 0.5 ha 미만의 영세규모의 농가가 전체 19.1%로 나타났는데, 이는 1987년도 우리나라 전체 27%(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8)보다 낮았다. 가장 높은 수치는 0.5~1 ha 미만의 규모가 전체의 29.2%였다.

특이한 사항은 농촌에 거주는 하고 있지만 비경작가구가 전체의 17.4%나 있으며, 이는 1987년 우리나라 전체 2%(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8)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조사지역의 특수한 상황과도 관계가 있으나 대부분의 농가가 탈농상황에 이르는 사회적, 경제적 요인도 작용했으리라 생각한다.

순수한 소유규모(표 V-7)에서 보았듯이, 전체 농가의 전답소유 규모가 평균 1,900평, 충청도가 2,100평, 전라도가 1,800평, 경상도가 1,800평이나 경작규모를 보면 전체 농가의 경우가 2,400평, 경상도가 2,500평, 충청도가 2,000평으로 나타나 농가의 소작규모의 정도를 알 수 있으며, 충청도의 경우는 비소유 비농가의 규모가 가장 컸으나 평균치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은 대규모 농토의 소유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V-7).

참고로 우리나라 세지역(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의 경우를 1985년, 1988년의 경제기획원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그 변화를 본 결과는 그리 두드러지게

〈표 V-6〉 지역별 농가의 소유전답규모

지역 / 소유전답규모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합계	
	f	%	f	%	f	%	f	%
비 소 유	51	35.6	21	14.1	21	18.1	93	22.8
0.3 ha 미만	9	6.3	17	11.4	18	15.5	44	10.8
0.3~0.5 ha 미만	11	7.7	26	17.5	20	17.2	57	14.0
0.5~1 ha 미만	35	24.5	45	30.2	31	26.7	111	27.2
1~2 ha 미만	25	17.5	38	25.5	20	17.2	83	20.3
2~3 ha 미만	8	5.6	2	1.3	4	3.5	14	3.4
3 ha 이상	4	2.8	149	100.0	2	1.7	6	1.5
합 계	143	100.0			116	100.0	408	100.0
평 균	21.2		18.8		18.9		19.7	

〈표 V-7〉 지역별 농가의 경작지 전답규모

지역 / 경작규모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합계	
	f	%	f	%	f	%	f	%
비 소 유	39	27.3	16	10.7	16	13.8	71	17.4
0.3 ha 미만	7	4.9	16	10.7	15	12.9	38	9.3
0.3~0.5 ha 미만	7	4.9	18	12.1	15	12.9	40	9.8
0.5~1 ha 미만	39	27.3	48	32.2	32	27.6	119	29.2
1~2 ha 미만	33	23.1	44	29.5	26	22.4	103	25.2
2~3 ha 미만	11	7.7	7	4.7	9	7.8	27	6.6
3 ha 이상	7	4.9	—	—	3	2.6	10	2.5
합 계	143	100.0	149	100.0	116	100.0	408	100.0
평균 경지규모(백평)	27.1		20.9		25.5		24.4	

나타나지 않았고, 본 조사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는 비경작 농가가 현저하게 많은 것과 2-3ha 농가와 3ha 이상의 경작규모를 지니고 있는 농가가 조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표 V-8).

2. 지역별로 본 契참여, 목적별 참여수, 목적별 참여여부

契의 선호도를 알기 위해서, 가족이 들고 있는 契참여수를 알아본 결과, 전체 가구중에서 契참여 가족이 있는 경우가 62.9%나 되어 아직도 契가 농촌 가족에 있어서 크게 선호의 대상임을 알 수가 있다. 이는 1958년의 조사와 비교해 볼 때, 오히려 契선호나 수효가 더 증가했다. 즉, 고황경외(1959)의 연구결과는, 전체 응답자중 42.6%만이 契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본 연구는 62.9%로 나타난 것이다.

이 변화치를 지역적으로 보면 경상도는 농가가족원의 39.4%(1958)가 契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1990년 조사에서는 67.6%, 충청도는 1959년에 41.8%에서 1990년 60.8%, 전라도는 1959년 47.7%에서 1990년 59.5%였다. 이것은 경상도는 충청도와 전라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참여율이 늘었고, 전라도는 타지역에 비해서 그 늘어난 정도가 반에 불과했다.(표 V-9)

또한, 이는 농어촌을 대상으로 과거에 契참여 경험

〈표 V-8〉 지역과 경지규모별 농가 구성비(985, 1988)

(단위 : %)

년도 지역 / 경지규모	1985					1988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3지역 합계	한국전체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3지역 합계	한국 전체
비경작가구	2.5	2.1	1.1	1.8	2.4	1.7	1.6	0.8	1.3	1.7
0.3 ha 미만	4.5	14.0	12.8	12.9	12.5	11.4	14.9	12.2	12.7	12.4
0.3~0.5 ha 미만	13.9	16.9	16.5	16.0	15.2	14.2	16.8	16.2	15.9	15.3
0.5~1 ha 미만	34.7	37.2	37.8	36.8	35.6	33.4	36.2	36.4	35.6	34.3
1~2 ha 미만	31.1	26.2	26.7	27.6	28.6	32.2	27.1	28.5	28.9	29.6
2~3 ha 미만	5.1	3.0	4.0	3.9	4.5	5.7	3.4	4.5	4.4	5.2
3 ha 이상	1.2	0.6	1.1	0.9	1.2	1.4	0.7	1.4	1.1	1.5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한국통계연감, 1986, pp. 100, 1989, pp. 102

〈표 V-9〉 지역별로 본 가족의 契참여수(가족 모두 포함)

지 역 / 참 여 수	충 청 도		경 상 도		전 라 도		합 계	
	f	%	f	%	f	%	f	%
없 음	57	(39.9)	49	(32.9)	47	(40.5)	153	(37.5)
1	35	(24.4)	39	(26.2)	29	(25.0)	103	(25.2)
2	32	(22.4)	26	(17.4)	25	(21.6)	83	(20.3)
3	15	(10.5)	16	(10.7)	7	(6.0)	38	(9.3)
4	4	(2.8)	13	(8.7)	4	(3.4)	21	(5.1)
5	—	—	3	(2.0)	4	(3.5)	7	(1.7)
6 이상	—	—	3	(2.0)	—	-	3	(0.9)
합 계	143	(100.1)	149	(100.0)	116	(100.0)	408	(99.9)
평 균	1.12		1.28		1.17		1.29	

이 있는 경우(62.5%)와 현재 참여여부(42.1)를 질문한 정한규(1986)의 결과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정한규의 자료 대상은 개인에 국한한데 반하여, 우리의 자료는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아직도 契가 농촌 모임에 큰 촉매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가의 가족당 평균契참여수는 경상도(1.28), 전라도(1.17), 충청도(1.12)의 순이며, 전체는 1.29로, 한 가족이 평균 1개 정도는 契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것은 가족이 많을 수록 그리고 가족원이 고령일 수록 계참여가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나 본 연구에서는 거기까지 접근하지 못했다.

3. 지역별로 본 契의 목적별 참여여부

조사대상 농가의 목적별 계참여여부를 보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이 참여하고 있는 계의 종류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친목을 위한 契가 가장 많았고 (37.8%), 상, 제사나 혼인을 위한 契(길흉사 부조, 상호부조) (30.7%), 관광여행을 위한 契 순으로 나타났다. 친목계와 관광계를 같은 맥락에서 볼 때에 친목과 관광을 위한 契가 주종을 이룬 것을 알 수 있다(표 V-10).

고황경외(1959)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전체에서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契는 혼, 상, 갑을 위한 契가 전체 응답자의 27.1%(契를 참여하고 있는 가족 중에서는 63.7%), 그 다음 친목을 위한 契가 전체 응답자의 27.1%(契를 참여하고 있는 가족 중에서는 63.7%), 그 다음 친목을 위한 契의 순인 것에 반하여, 친목계가 더 우선적으로 바뀌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것은 과거 고황경외(1959), 이만갑(1960), 도홍렬(1965), 강창균(1969), 이만갑(1980), 최은영(1984)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과거 상제나 혼인을 위한 상호부조적인 契의 흐름이 주종을 이룬 것과는 대조적으로 친목을 위한 契가 더 우선적으로 나타나서 농촌 契의 시대적인 흐름을 볼 수 있다.

즉, 공동부락의 성격이 농후하던 과거에는 이웃의 혼상제가 우리 가족의 일처럼 서로 돕고 상호부조 및 협동하던 우리 농가의 따뜻한 온정이 단순한 친목을 위한 契로 흘러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일 수 없다.

친목과 관광을 한데 묶으면, 경상도(60.4%), 전라도(49.1%), 충청도(41.3%)로 이는 여러 요인이 있으나 경제적인 상태와 가치관의 변화, 농가의 기계화로 인한 노동시간의 감축, 그리고 농가인구의 노령화 등이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4. 연구문제 검증 결과 및 해석

각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여러 통계적 방법을 사용했으며, 주된 방법은 One Way ANOVA(일원 변량분석)와 Simple Regression(단순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표 V-10〉 지역과 목적별 가족의 계참여여부

지역 / 契참여 목적	참여여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합계	
		f	%	f	%	f	%	f	%
상, 제사, 혼인	참 여	44	30.8	40	26.8	41	35.3	125	30.7
	비참여	99	69.2	109	73.2	75	64.7	283	69.3
친목을 위해서	참 여	48	33.6	62	41.6	44	37.9	154	37.8
	비참여	95	66.4	87	58.4	72	62.1	254	62.2
돈을 이용하기 위해서	참 여	21	14.7	7	4.7	10	8.6	38	9.3
	비참여	122	85.3	142	95.3	106	91.4	370	90.7
관광을 위해서	참 여	11	7.7	28	18.8	13	11.2	52	12.8
	비참여	132	92.3	121	81.2	103	88.8	356	87.2
합 계		143	100.0	149	100.0	116	100.0	408	100.0

1) 지역별 전체 契참여수 및 목적별 참여 현황

전체 계참여수의 지역별 차이를 One Way ANOVA로 본 결과는 다음 (표 V-11)과 같다.

경상도가 타지역보다 契참여가 많았고, 그 다음이 전라도, 충청도의 순이였으며($p<.05$), 그리고 계가입 목적이 상, 제사, 혼인을 위한 契모임과 부모를 위한 契모임은 지역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친목계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순으로 지역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1$), 또한 금전계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순으로 지역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관광계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의 순으로 지역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계참여수와 목적별 참여수의 지역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전체 계참여수와, 목적별인 친목계, 금전계, 관광계는 지역간의 차이가 있으나 세 지역간의 내부관계를 볼 때는 경상도와 충청도 및 전라도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나 충청도와 전라도 사이에는 유의한 차가 없었다. 이것은 지역별 경제적인 상황과 여러 요인에서 오는 것으로 더 깊은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

2) 契의 참여수 및 목적별 참여수 현황과 농가 가구주의 거주기간과의 관계

가구주의 거주기간은 그 가족이 터전을 자리잡은 기간과 관계가 있으므로 가구주의 거주기간이 契의 참여수 및 목적별 참여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서 단순회귀분석(Simple Regression)을 해 보았다. 그 결과 금전계만이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회귀공식을 설명할 뿐이며, 나머지는 전혀 미치는 영향이 없었으며, 금전계에서도 R^2(설명력)이 낮아서 또 다른 변수의 설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표 V-12).

그러나 금전계에 있어서는 거주기간과 금전계의 참여는 거주기간이 길수록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도시주부를 대상으로 한 계의 참여를 볼 때(김시월, 1991) 반대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도시는 현재의 거주공간에서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신용과 안면의 영향으로 금전계의 참여가 높았으나, 농촌은 이와는 무관한 것 같다. 도시는 이동성이 높아 이웃과 친숙할 기회가 적어서 거주기간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나 농촌의 경우는 각 가구별 거주기간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가 모두 안면을 익힐 정도의 기간은 넘는 것(본 조사 가구주의 거주기간을 볼 때 10년 이상인 경우가 90%에 가까움)이므로 이 관점에서 보면 거주기간의 차이가 없는 것과 같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거주기간이 계참여에 영향을 줄 변수로 선정한 것은 낮은 설명력이 말해 주듯 타당치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 다른 변수의 설정이 필요하다.

3) 契의 참여수 및 목적별 참여수 현황과 농가의 농토소유면적

농가의 농토소유면적이 契참여수 및 목적별 참여수 현황에 미치는 영향을 본 결과는 (표 V-13)과 같다.

독립변수인 농가의 농토소유면적이 전체계의 참여수(β : .2511)에 영향을 미치며, 친목계(β : .2134), 금전계(β : .1425), 관광계(β : .1230) 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는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으나, 소유면적과 경제

〈표 V-11〉 지역별 契의 전체 참여수 및 목적별 참여의 ANOVA 결과

구분	전체계 참여 평균점수	Duncan's	상,제사, 혼인 계 평균점수	Duncan's	친목계 평균점수	Duncan's	금전계 평균점수	Duncan's	관광계 평균점수	Duncan's	부모를 위한 계 평균점수	Duncan's
충청도	1.12	A	0.39		0.45	A	0.17	A	0.84	A	0.01	
경상도	1.52	B	0.38		0.76	B	0.06	AB	0.26	B	0.04	
전라도	1.17	A	0.38		0.47	A	0.10	A	0.15	A	0.03	
F	3.73*		0.01		5.74**		3.12*		5.36**		0.70	

* $p<.05$ ** $p<.01$ *** $p<.001$

〈표 V-12〉 가구주의 거주기간이 契의 참여수 및 목적별 참여수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전체계참여		상,재사,혼인 계		친목계		금전계		관광계		부모를 위한 계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독립변수: 거주기간	-.0055	-.0809	-.0007	-.0244	-.0023	-.0534	-.0018*	-.0963	-.0005	-.0253	.0002	.0323
상수	1.5039		0.4109		0.6615		0.1817		0.1739		0.0165	
R^2	0.01		0.01		0.01		0.01		0.01		0.01	
F	2.6754		0.2424		1.1608		3.7994 *		0.2599		0.4243	

* p<.05

〈표 V-13〉 농가의 농토소유면적이 계의 참여수 및 목적별 참여수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전체계참여		상,재사,혼인 계		친목계		금전계		관광계		부모를 위한 계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독립변수: 농토소유면적	.0159***	.2511	.0014	.0484	.0085***	.2134	.0024**	.1425	.0026*	.1230	-.0002	-.0284
상수	0.9665		0.3517		0.3988		0.0612		0.1032		0.0312	
R^2	0.06		0.002		0.05		0.02		0.02		0.01	
F	27.3229***		0.9551		19.3667***		8.4151**		6.2328*		0.3266	

* p<.05 ** p<.01 *** p<.001

적 지위와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것 같으며, 농가의 최근 계참여 목적이 과거의 상, 혼사 등의 가족전체나 집안 중심에서 친목이나 관광과 같은 개인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별 회귀식을 설명하는 R^2(설명력)이 낮아서 또 다른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큰 것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그 설명 변수가 무엇인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4) 契의 참여수 및 목적별 참여수 현황과 농가의 경작지면적

농가의 총경작지면적이 契참여수 및 목적별 참여수 현황에 미치는 영향을 본 결과 다음 (표 V-14)와 같다.

契의 목적중에서 부모를 위한 契(효도관광, 부모회갑연 등)만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나머지는 모두 유의했다(p<.05). 이것을 표준화 회귀계수인 β값으로

〈표 V-14〉 계의 참여수 및 목적별 참여수 현황과 농가의 경작지면적

종속변수	전체계참여		상,재사,혼인 계		친목계		금전재		관광계		부모를 위한 계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독립변수: 경작지면적	.0146***	.2691	.0027*	.1081	.0071***	.2084	.0016*	.1108	.0020*	.1178	.0001	.0273
상수	0.9147		0.3117		0.3884		0.0694		0.1011		0.0226	
R^2	0.07		0.01		0.04		0.01		0.01		0.01	
F	31.7031***		4.8021*		18.4234***		0.0458*		5.7129*		0.3026	

* p<.05 ** p<.01 *** p<.001

보면, 전체계 참여수(β : .2691), 친목계(β : .2084), 관광계(β : .1178), 금전계(β : .1108), 부모, 상, 혼인을 위한 계β : .1081) 등으로 농가의 총경작지 면적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가의 총경지면적과 농토소유면적중 어떤 변수가 더 유력한 설명변수인가를 보면, 설명력에 있어서는 농가의 경작지 면적이 약간 높은 반면에 β계수는 오히려 농토소유면적이 약간 더 높았다. 따라서 농가의 총경작지면적과 농토소유면적이 많을수록 계참여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Ⅵ. 결 론

과거 농경사회에 토지를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던 우리 조상의 아름다운 협동의식인 契를 농촌 가구주를 대상으로 계참여와 목적별 참여 현황을 농가의 거주기간, 농토소유면적, 경작지 면적 등의 변수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지역을 조사했다. 1990년 2월에 실시한 본 조사는 Asian Family Project의 Raw Data를 사용하였으며, 분석기법은 SPSS PC+로 ANOVA, Simple Regression을 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간의 계참여수와 목적별 참여수의 차이를 본 결과, 契의 전체 참여도에서 세 지역간(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의 차이가 유의했고, 그리고 목적별로는 친목계, 금전계, 관광계에서 지역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거주기간과 금전계의 참여는 거주기간이 길수록 금전계의 참여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셋째, 농가의 농토소유면적이 증가할수록 계참여수가 증가하고, 친목계, 금전계, 관광계도 늘어나고 있었다.

넷째, 농가의 총경작지면적이 증가할수록 계참여수가 증가하고, 상, 제사, 혼인을 위한 계, 친목계, 금전계, 그리고 관광계가 증가하여, 농가의 총경작지 면적은 농가의 契참여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즉, 농가의 계가 과거에는 가족이나 문중, 집안과 같은 넓은 혈연 중심의 일들을 위한 협동과 단결을 위한 대응책이였으나, 최근에는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좁은 의미로 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목적도, 친목이나 관광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거주기간과 같은 관련변수의 부적절한 설정으로 설명력이 부족한 만큼 또 다른 변수의 영향을 고려하여 더 깊이있는 연구가 이루어져 한국 고유의 단합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한 몫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농가의 계참여는 아직 존속하고 있어, 앞으로도 한국인 고유의 특성을 유용하게 공동체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90 인구주택총조사, 1990. 10. 15.
2)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인구 및 주택 센서스, 1985.
3)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한국통계연감, 1985.
4) 고황경 외, 한국농촌가족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59.
5) 김병하, "계의 사적 고찰", 중앙대학교 경상학보 7집, 1958, pp. 57~119.
6) 김삼수, 한국사회경제사연구, 박영사, 1966.
7) 김삼수, 오현수, 한국경제 36년,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1984.
8) 김석준, "제주도 농촌 주민의 계결사체 참여와 사회적 유대", 한국사회학 제22집, 한국사회학회, 1988, pp. 117~141.
9) 김시월, 계연구를 위한 이론적 고찰 및 새로운 접근, 건국대학교대학원 논문집, 제32집, 1991, pp. 275~290.
10) ———, "도시주부들의 계참여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9권 2호, 1991, pp. 155~167.
11) 김필동, "계연구의 성과와 반성 · 재정향—계의 사회사적 연구를 위하여—", 한국사회학연구 8,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 1985. pp. 63~98.
12) 도홍렬, "농촌의 사회구조와 협동조합운동의 참여에 관한 연구—경기도 2개 부락의 조사연구—", 사회학론집 제2집, 사회학연구회, 1965, pp. 92~122.

13) 박무송, 소비자 금융과 신용, 행림출판사, 1988.
14) 손인철, 한국인의 도와 미풍양속, 민음사, 1984.
15) 염희영, 한국농촌의 부락구조, 고대아시아문제연구소 연구총서 9, 1967, pp. 3~19.
16) 왕인근, 현대의 농촌사회학-한국농촌사회학서선-, 박영사, 1983.
17) 이광규, 한국의 가족과 종족, 민음사, 1990.
18) 이만갑, 한국농촌의 사회구조, 한국연구총서 5집, 1960.
19) 이영기 외 공저, 한국농업문제의 새로운 인식, 돌베개, 1984.
20) 이영헌 역, 공동체의 기초이론, 돌베개, 1982.
21) 장동섭, "전근대사회에 있어서 서민협동체로서의 계에 대한 연구-특히 이조시대를 중심으로", 전남대 논문집 15, 1969, pp. 1~41.
22) 정한규, 계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한국산업연구소, 1986.
23) 최은영, 한국 농촌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계-경기도 여주군 한 마을의 사례-,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24) 최재석, 한국농촌사회연구, 일지사, 1985.
25) ———,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개문사, 1965.
26) 최 협, "한국사회·공동체 이념", 한국사회학 제20집, 한국사회학회, 1986, pp. 15~33.
27) 한상복, "한국인의 공동체 이념", 한국사회와 문화 : 한국현대사회와 문화전통, 제3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28) 한국은행, 저축시장조사, 1989.
29) 文定昌, 朝鮮農村團體史, 日本評論社, 東京, 1942.
30) E. des Brunner and W.C. Hallenbeck, American Society : Urban and Rural Patterns, New York : Harper and Brothers Publishers, 1955.